

시론



김 선 기
남도인문학연구원장·문학박사

우리는 말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휴대전화에는 쉴 새 없이 메시지가 도착하고, 인터넷에는 수많은 주장과 의견이 쏟아진다. 누구나 본인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말은 이렇게 많아졌는데, 서로를 이해하는 일은 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일까.

돌이켜보면 우리는 말하는 법은 배웠지만 듣는 법에는 서툴렀다. 내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은 중요하게 여겼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인색했다. 대화하면서도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보다 자신의 다음 말을 준비하기 일쑤다. 그렇게 대화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기가 아니라 각자의 주장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만다.

이러한 모습은 개인의 일상에만 머물지 않는다. 정치권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반박할 말을 먼저 찾고, 온

말은 넘치는데, 왜 마음은 닿지 않는가

라인 공간에서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난과 혐오의 언어가 오간다. 서로 다른 의견이 만나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기보다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는 것이다. 말은 소통의 도구여야 하지만,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높은 벽을 쌓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문학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문학은 본래 타인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한다. 한 편의 시를 읽는다는 것은 시인이 바라본 세계와 그 마음의 떨림을 함께 느끼는 일이다. 소설을 읽는 것 또한 내가 살아보지 못한 누군가의 삶으로 들어가 그의 기쁨과 슬픔, 상처와 고독을 마주하는 경험이다. 따라서 문학은 나와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쉽게 판단했던 사람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며칠 전 한글날을 보냈다. 우리는 한글이 지닌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그 문자로 어떤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지도 돌아볼 일이다. 아무리 훌륭한 문자를 가졌더라도 그것으로 타인을 모욕하고 상처 입힌다면 언어의 가치는 빛을 잃는다. 문자의 우수성이 곧 언어생활의 품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언어의 품격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수준과도 맞닿아 있다. 정치와 행정의 언어는 시민의 삶을 향해야 하고, 언론의 언어는 사실

을 밝히면서도 사람의 존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내뱉는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말 한마디가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지만, 오래된 불신을 풀어내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어서다.

그렇다고 소통이 언제나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는 자세다. 경청은 본인의 생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때 비로소 대화는 승패를 가르는 다름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바뀐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도 정작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놓칠 때가 많다. 말끝에 묻어나는 망설임, 차마 꺼내지 못한 사연, 침묵 속에 감춰진 속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소통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그의 삶을 이해하려는 데서 시작된다.

한글날을 보내며 다시 묻는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가보다, 얼마나 많은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말은 입에서 태어나지만, 그 울림은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남는다.

자치칼럼



이 계 양
품자주자 시민들 공동 회장·
前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교장

바야흐로 AI 시대다. AI가 인문 사회 과학 역사 철학의 근본 문제나 회사와 국가 경영까지도 해결의 항해사 노릇을 하고 있다. 최근 AI가 인간의 통제를 이미 벗어나 인류를 멸망하게 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고들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특히 소셜미디어 알고리즘과 결합된 AI는 확증 편향의 강화, 사회적 갈등 극대화, 상식과 사실에 기반한 공론장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위협한다. 나아가 AI를 악용한 고도화된 피싱, 목소리와 신원 복제 등은 개인 간, 개인과 기관 간의 불신으로 이어져 사람들의 유대, 상호 이해, 공감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는 사람들의 고립감을 심화하고 각자도생으로 일상을 황폐하게 만든다. 또 개인과 사회의 불신은 인간성을 상실하게 해 공동체를 와해시킨다. 진정한 공동체란 물리적 공간이나 이해관계의 공유를 넘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 아픔이 나와 연결돼 있음을 깨닫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유기적 생명체이다.

공동체의 생명력은 무엇일까? ‘품자 주자’가 열쇠라고 말하고 싶다.

대동(大同) 즉 공동체의 개념은 이미 예기(禮記) 예운(禮運)편에 “큰 도가 행해지면

공동체의 열쇠말 - ‘품자 주자’

천하가 공평해져서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이 나아가게 되며 신의가 존중되고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게 되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 노인은 여생을 편안히 마치게 되고, 젊은이는 쓰이게 되며, 어린이는 성장하게 된다. 흠아비와 흠아미, 부모가 없는 아이와 자식이 없는 노인, 의지할 데 없는 사람과 병이 든 사람도 봉양을 받게 된다. 남자는 일이 있고 여자는 혼처가 있다. 재물이 땅에 버려지는 것을 미워하지만 자신만을 위해 갈무리하지 않으며 자기 몸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미워하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 이런 까닭으로 음모는 폐하여 일어나지 않고 도둑과 절도범, 난신적자가 생겨나지 않으므로 문을 닫지 않는다. 이를 이르러 대동이라 한다.”고 잘 정리해 놓았다.

공동체의 핵심은 ‘같은’에 있기보다 ‘다름’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있다. 함께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들 특히 환과 고독(鰥寡孤獨)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문을 닫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문을 열어둬온 곧 ‘품어줌’과 같은 말이다.

‘품어주다’는 ‘품다’와 ‘주다’의 합성어다. 품’은 ‘안기거나 안기는 것으로서의 가슴’이라는 공간이면서, ‘서로 따뜻하게 감싸 주거나 보호해 주는’ 관계이고, ‘일하는 데 드는 힘이나 수고’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품다’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형편, 상황 나아가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를 품어 다른 사람인 존재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말이다. 배척보다 수용, 판단보다 이해를 앞세우는 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주다’는 내가 가진 것들(시간, 마음, 관심, 소유)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일이다. 하지만 ‘주다’ 역시 행위자의 품 안에서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고, 그러려면 먼저 상대를 살펴야 한다. 그래서 ‘품다’와 ‘주다’는 서로 분리된 행위가 아니다. 품은 마음이 있어야 제대로 줄 수 있고, 줌(나눔)이 있을 때 품음은 관계의 언어가 된다.

동사 ‘품다’와 ‘주다’는 그 자체로 내향성을 가진 말이다. ‘품다’는 마음속에 품어 안는 행위이며, ‘주다’는 내 안의 것을 건네는 태도이다. 즉 ‘품다’는 타인의 결핍과 상처를 내 가슴속에 안아 들이는 내향적 의미이며, ‘주다’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의 것을 나눠주는 성찰의 과정이다. 공동체는 이 내향적 성찰을 통해 서로를 감싸 안고 받아줄 때 가능하다.

그런데 ‘품다’와 ‘주다’가 외향적 의미인 ‘품자’와 ‘주자’라는 청유형 동사로 확장되는 순간 강력한 공동체의 본질이 된다. 이는 ‘나를’ ‘우리’로 확장하고 승화시키는 마법의 언어다. ‘내가 너를 품어주고, 네가 나를 품어줄’ 때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 인간성을 상실하고 각자도생느라 소외와 배제의 늪에서 허위대는 AI시대의 불안하고 고단한 현대인들에게 ‘품자 주자’는 마음과 실천은 배려하고 존중하며 환대하는 진정한 공동체, 대동사회의 생명력을 부활하게 할 것이라 확신한다.

필자가 속해있는 시민단체인 <품질자치 주민자치 시민들>을 줄여서 ‘품자 주자’라 한다. 이 단체가 꿈꾸는 가치도 ‘품자 주자’ 곧 포용과 나눔, 배려와 존중의 공동체다. 품자 주자는 확실히 공동체의 열쇠말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대표적인 금융범죄다.

터넷 주소를 누르지 말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가 온다면 일단 끊은 뒤 해당 기관이나 가족에게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국번 없이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상담을 요청하고, 이미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

지만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결국 예방이다. 모르는 전화와 의심스러운 문자에 한 번 더 경계하고, 금전을 요구받았을 때 잠시 멈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한 번의 송금은 되돌리기 어렵지만, 한 번의 의심과 확인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사후 대처보다 예방이 최선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김찬 광산경찰서 월곡지구대>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지역의사제 정착은 시스템 확충이 답이다

지역 의과 대학을 졸업한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국립대 의대 졸업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근무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은 이제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정착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특히 오는 2027년부터 지역의사 전형이 도입이 예정된 만큼, 근무 여건, 수련 및 경력 개발 지원, 지역 의료 인프라 등 시스템 확충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과 2025년 2월 졸업한 9개 지방 국립대 의대 졸업생 중 43.8%가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았고 경기, 인천 순이었다.

대학별 격차도 컸다.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취업 비율이 전남대를 비롯해 부산대, 경상국립대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반면 강원대, 전북대, 충북대, 충남대 등에서는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이 같은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나 지역에 대한 애착 부족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과 의무복무, 복무 이후 지역사회 정착까지 중장기적인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배출된 지역의사를 공공병원 확충과 공익의료법인, 공공보건의원 등과 연계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법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의사제는 선발 단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역의사 전형은 의과대학 입학 단계에서부터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목표로 학생을 선발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인 만큼, 교육과 수련, 취업을 연결하는 중장기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지역의사 전형의 성패는 의사를 얼마나 많이 선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양성된 의사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잘 조성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다.

전남 쌀 생산량 증가는 반길 상황만 아니다

올해 전남지역 벼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이 모두 증가했다. 문제는 쌀 소비 감소와 공급 과잉 문제로 인해 전국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무작정 반길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남농민들이 왜 벼 농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와 전남 농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남 벼 재배면적은 14만3천696ha로 지난해 14만2천443ha보다 1천253ha 늘어났다. 전남의 쌀 예상 생산량도 71만5천77t에서 지난해 68만6천504t보다 약 4.3% 증가했다.

전남의 벼 재배면적이 늘어난 요인에는 무엇보다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것이다. 실제 벼농사는 다른 발작물에 비해 기계화율이 높아 노동력 부담이 적다는 점과 지난해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벼농사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반면 올해 전국 벼 재배면적은 67만ha로 지난해보다 1.1% 감소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가

장 작은 규모다. 올해 쌀 예상 생산량도 351만8천t으로 지난해보다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쌀 생산량은 2022년 376만4천t을 기록한 이후 5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생산량이 예상대로 확정되면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전락작물직불제와 논 타 작물 전환사업 등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벼의 단위면적당 생산성은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0a당 예상 생산량은 525kg으로 지난해 522kg보다 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벼의 가지치기와 낱알이 형성되는 시기에 기상 여건이 양호한데다, 벼알이 어무는 시기인 9월에도 일조시간이 충분했던 이유다.

이제는 벼 재배면적을 논의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판로와 적절한 쌀값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전남 농가의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농정의 목표인 전남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월요시화 月曜詩話

「불만의 모습」 - 고선주

불만이 커가는 모습은 아무 데서나 보이지 않는다 우연하게 볼 수 있는 것가령 숙박시설에 들어갔더니 다른 방에 비해 TV가 너무 후졌거나 욕조 바닥 물이 빠지지 않거나 난방이 되지 않거나 열쇠가 뻑뻑하거나 외풍이 심하거나 할 때 막대풍선처럼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며칠 있다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틀림없이 법당이나, 예배당에 간다는 것을

- 고선주, 『오후가 가지런한 이유』, b판시선, 2018.

세계가 가지런한 이유와 가지런하지 않은 이유를 알 것 같다. 불만을 어딘가에 쏟아부었거나 멈추었다는 것이겠지. 불만이 제멋대로 나타나게 하거나 작은 불만이라도 누군가를 다치지 않게 회개의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는 것이겠지.

아직은 기도의 힘으로 가지런히 눌러 놓았으나 마음의 울퉁불퉁함이 어떻게든 자라려고 하니 어쩔 것인가.

내내 다독이고 다독여야만 한 풍경 만들고 살 것 같은데, 풍경은 낡고 뻑뻑한 것들로 채워지고 을씨년스러운 그늘 속 기도는 자꾸 아위기만 하는 것인지. 불만 조금 더 자란 때문인지.

- 천세진 시인·비평가, 웹진 <초록의자> 주간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濶皓 사장·발행·편집인 崔宰豪 주필·이사 朴恩成 편집국장 崔權範

(우)61636 전남광주통합특목읍 남구 천변제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